

“2020도쿄올림픽 내년 7월 23일 개막”

33개 종목연맹, 새 올림픽 일정 만장일치 승인
수영·육상 세계선수권대회 일정 조율 문제 해소
패럴림픽 8월 24일~9월 5일... 개·폐막 앞당겨

도쿄올림픽의 폐대를 이루는 33개 정식 종목 국제연맹(IF)이 내년 7월 23일 열기로 한 새 대회 일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하계올림픽국제연맹연합(ASOIF)의 프란체스코 리키 비티 회장은 31일(한국시간) AP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33개 종목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내년 새 올림픽 일정을 승인했다”며 “모두가 이 일정이 최고의 해답이라고 확신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 도쿄도 정부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7월에 열기로 한 2020 도쿄올림픽을 2021년 7월 23일부터 8

월 8일까지 개최하기로 30일 발표했다.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린다. 원래 일정과 비교해 새 일정은 완전히 1년 뒤로 연기됐다. 대신 올림픽 개막일과 폐막일은 각각 하루씩 앞당겨졌다.

IOC는 먼저 도쿄조직위와 일정에 합의한 뒤 IOC 긴급 집행위를 열어 이를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ASOIF의 승인을 거쳐 도쿄올림픽 새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국제테니스연맹 회장을 지낸 리키 비티 ASOIF 회장은 IOC와 도쿄조직위가 24일 대회 연기를 선인한 직후 여러 IF와 새 대회 일정을 조율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는 “국제테니스연맹(철인3종) 연맹과 승마연맹은 도쿄의 한여름 무더위를 우려해 올림픽을 좀 더 이른 시기에 치르기를 원했다”며 “그러나 올림픽을 봄에 열면 많은 프로 선수들이 참가할 수 없었기에 이 제안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소개했다.

미국프로농구(NBA) 슈퍼스타들의 출전으로 늘 높은 관심을 받는 농구를 비롯해 6~7개 종목이 올림픽을 일찍 개최하면 프로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사이클 일주대회인 투르드프랑스(2021년 7월 2~25일), 메이저 테니스대회인롤랜드(2021년 6월 28~7월 11일) 등 굵직한 이벤트와 올림픽이 겹쳐선 안 되는 사정도 고려해야 했다.

리키 비티 회장은 국제수영연맹과 세계육상연맹이 각각 내년 예정된 세계선수권대회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33개 종목

간의 일정 조율 문제가 대부분 풀렸다고 덧붙였다.

세계육상연맹은 세계선수권대회를 2022년으로 미룬다고 밝혔고, 국제수영연맹은 2021년 중 적당한 시점으로 세계선수권대회 일정을 옮길 예정이다. 도쿄올림픽 새 일정이 사실상 올해와 똑같은 시기로 귀결될 수 하나의 배경에는 방송 중계권이 있다.

IOC는 4년 주기로 열리는 올림픽의 수익금 57억달러(약 6조9800억원) 중 73%(5조1000억원)를 방송중계권 수입으로 충당한다.

특히 TV 중계권 수입의 절반이 미국 방송사 NBC가 내는 돈이다. 미국 내 독점 중계권을 행사하는 NBC가 가장 희망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어서 ASOIF도 결국 이에 따라 수밖에 없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비티 회장은 “프로 종목의 일정은 더는 선수 중심이 아닌 사업 중심적인 것”이라고 평했다.

7시즌 동안 통산 5번 수상

여자프로농구 야산 우리은행의 가드 박혜진(30·178cm)이 하나원큐 2019~202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31일 발표한 MVP 기자단 투표 결과에 따르면 박혜진은 총 투표수 108표 가운데 99표를 획득해 MVP 영예를 안았다.

2013~2014시즌에 처음 정규리그 MVP에 오른 박혜진은 이후 2014~2015, 2016~2017, 2017~2018시즌에 이어 올해 통산 5번째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됐다.

여자프로농구 사상 정규리그 MVP 최다 수상 기록은 정선민 전 인천 신한은행 코치의 7회다. 그다음이 박혜진의 5번이다.

정은순 KBS N 스포츠 해설위원과 변연희 부산 BNK 코치가 나란히 세 차례씩 MVP에 뽑혀 그 뒤를 잇는다.

박혜진은 최근 7시즌 사이에 무려 5번이나 정규리그 MVP를 휩쓸어 리그 최고의 선수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15~2016시즌에는 양지희 BNK 코치, 2018~2019시즌에는 박지수(KB)가 MVP가 됐다. MVP 상금 1000만원을 받은 박혜



드러블하는 박혜진.

연합뉴스

진은 이번 시즌 27경기에서 평균 14.7점을 넣고 5.4어시스트, 5.1리바운드의 성적을 냈다.

특점 7위, 어시스트 2위 외에도 3점 성공 개수 3위(54개), 3점수 성공률 6위(34%), 자유투 성공률 1위(89.2%), 출전 시간 2위(36분 59초), 국내 선수 공헌도 1위 등을 기록하며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1위 등극에 앞장섰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4월 말·5월 초 “플레이볼”

5월 5일 어린이날 가능성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여전히 지속되자 KBO가 시즌 개막을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또다시 연기했다.

KBO는 31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예초 4월 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구단 간 연습경기를 2주 미루기로 결정했다.

10개 구단 단장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학교 개학일이 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당분간 구단 간 연습경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단 간 연습경기는 예정됐던 날짜인 4월 7일보다 2주 늦은 4월 21일부터 추진된다. 사실상 시범경기 역할을 하는 구단 간 연습경기가 4월 21일부터 시작되면 개막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정규리그 개막일은 4월 20일 이후에서 4월 말 또는 5월 초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4월 21일 이후 연습경기가 시작되고 2주 뒤 개막이라면 현실적으로 5월 5일 어린이날이 개막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날 실행위에서

는 개막 시기를 5월 이후로 상정하고 기존의 팀당 144경기를 많게는 135경기, 적게는 108경기로 줄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135경기 변경안은 5월 5일 개막해 팀 간 15차전을 치른 뒤 11월 10일까지 포스트시즌을 마무리하는 방안이다. 가장 과감한 방식인 108경기 변경안은 5월 29일 개막해 개막 시기가 가장 늦지만, 경기 수가 확 줄어드는 만큼 포스트시즌을 11월 내에 끝낼 수 있다. 10개 구단 단장들은 이외에도 126경기, 117경기 등 5월 개막을 가정해 총 4가지 정규리그 일정 변경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류 사무총장 역시 시즌 개막일에 따라 시즌이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144경기를 하려면 5월 초가 마지막노선”이라며 “더 늦어지면 경기 단축도 고려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을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평소보다 빠빠한 리그 일정 때문에 올해 올스타전은 열리지 않게 됐다.

KBO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이후 4월 7일 다시 실행위를 열고 연습경기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늘은 내가 수비왕” 31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자책 홈백전이 열렸다. 홈팀 7회 초 2사에서 5번 김연준의 타구를 백팀 좌익수 이우성이 전력 질주 후 호수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41세 이동국 4년 연속 K리그 최고령

최연소 선수와 22세 차이

프로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41·전북)이 올해도 K리그의 최고령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빈다.

31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자료에 따르면 1979년생인 이동국은 올해 K리그 1·2 전체 등록 선수 785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최연소 선수인 경남 FC의 신인 수비수 심민웅(2001년 12월생)과는 22살 차이가 난다.

이동국은 2017년부터 K리그 최고령 선수가 됐다. 2017년에는 같은 1979년생인 김용대, 현영민, 정성훈도 뛰었는데, 이동국이 4월생으로 가장 생일이 빨랐다.

2018시즌까진 김용대가 함께 건재했으나 지난해부터 이동국이 리그에서 유일한 1970년대 출생 선수가 됐다.

K리그 필드 플레이어 최고령 출전

기록(지난해 12월 1일 기준 40세 7개월 22일)을 보유한 이동국은 이번 시즌 한 경기 출전할 때마다 기록을 경신한다.

전체 최고령 출전 기록에서 현재 이동국을 앞선 선수는 김병지(45세 5개월), 신의손(44세 7개월), 최은성(43세 3개월)뿐인데, 모두 지금은 은퇴한 골키퍼다.

1부리그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팀은 이동국의 소속팀인 전북 현대(27.3세)이며, 최연소 팀은 22세 이하 선수(19명)가 가장 많은 대구(23.8세)다.

2부리그에서는 경남이 27.1세, 충남 아산이 24.7세로 각각 최고령·최연소 팀으로 나타났다.

입단 시기 기준으로 봐도 전북은 평균 2014년 5월로 연차가 가장 높았고, 대구는 2017년 5월로 가장 낮았다.

연합뉴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JIBS/SBS, EBS1, and KCTV, listing broadcast schedules for various programs.

오늘의 운세 1일. A daily horoscope section featur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predictions for the day.